

저숙련 외국인민 유입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이민자의 영향에 주목하여 -

정 수 환 *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유입은 고학력 여성들에게는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반면 저학력 여성들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 별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이민자의 비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유입이 국내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별 남성 조선족 이민자 비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횡단면분석과 패널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성별, 국적별 이민자 숫자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10~18차 자료를 결합하여 살펴본 결과, 횡단면분석에서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노동시간 증대 효과가 관찰되었고 저학력 여성들에게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던 반면, 패널분석을 통하여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큰 고학력 여성에게서는 노동시간의 증대효과가 관찰된 반면 저학력 여성들에게서는 노동시간의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횡단면 분석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가 긍정적 효과를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율 결정에서는 고학력 여성에게는 영향이 없었고, 저학력 여성에게는 노동을 줄이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1. 서론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원 거주지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 역시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브렉시트(Brexit)나 미 대선에서 보듯, 이민은 수많은 정치경제적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계에서의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저숙련 노동자들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점점 고숙련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저숙련자들이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후반 이후에 유입되고 있는 소위 '신이민'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유입된 이민자들은 당대의 기존 노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 고숙련·고학력자였지만, 20세기 후반의 신이민은 저숙련·저학력자들이 더 많다. (Borjas 1999:8) 저숙련·저학력 이민자들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유럽 또한 마찬가지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외국인력 유입은 청년층이며 저학력자로 관찰되고 있다. (최경수 2013:157)

경제학에서 이민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저숙련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기존의 내국 노동자들(native workers)의 고용, 노동공급,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복지비용 등의 주제들이다. (대표적으로 김정호 2009, 최경수 2013, Card 1990, Borjas 1999, Osili and Xie 2009, Borjas 2014, Borjas 2016 등) 경제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민자들과 기존 노동자들 사이의 대체-보완 관계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혹은 ‘무임승차하는 이민자들로 인하여 세금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다!’와 같은 현실정치의 슬로건에 대한 뒷받침 혹은 반박으로 자극받은 측면이 크다.

물론 이러한 대체-보완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그 대체-보완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민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한다면 어떻게,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대체하며, 보완한다면 역시 어떻게 보완하는가? 무슨 노동을 대체하며 그것이 가져다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탐색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대체-보완관계와 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민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어떠한 노동을 어떻게 대체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볼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저숙련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에 종사하는가를 검토해보자. 많은 경우, 남성 저숙련 이민자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저숙련 이민자들은 요식업이나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특정한 직종에서의 고용에서는 이민자들의 비중이 불균등하게 높은 경우가 널리 목격된다. 미국의 경우, 사적인 가사노동 시장(private household sector)의 25%와 대도시 정원사의 29%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Cortes and Tessada 2011:88)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가사노동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10% 이상은 이탈리아 외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Barone and Mocetti 2011:666) 한국에서도 이민자들이 특정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사노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민자들이 가사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집에서 가사노동을 직접 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값싼 이민노동력을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노동공급 및 사회적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즉, 이민자들은 여성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을 대체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셈이다. 반대로 이미 가사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이민자들로 인하여 가사노동시장에서 구축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 경우에 이민자들이 대체하는 것은 기존 내국인 여성들이 시장에서 행하고 있던 가사노동이다. 두 경우 모두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동일하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민자들의 존재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이 받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제상황, 숙련수준, 직종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해외 학계에서도 최근에서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저숙련 여성 이민자들의 유입이 고숙련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II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될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민 여성들의 공급을 통하여 가사노동시장에서 가사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따라서 고숙련 여

성들은 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된 국가들은 모두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Cortes 2008, Cortes and Tessada 2011)이나 유럽연합 국가들(Barone and Mocetti 2011, Farre et al. 2011), 혹은 홍콩(Cortes and Pan 2013) 등이다.

이 연구는 우선 기존에 검토된 국가들과 달리, 이민자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으며 최근에서야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비슷한 영향이 발견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민이 이미 수십 년 혹은 수 세기에 걸쳐 진행된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가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된 고숙련 여성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저숙련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 논의¹⁾에도 참고가 될 만한 연구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가사노동에 가장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노동자들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족 노동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노동자들에 비하여 기존의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동질성이 특히 큰 인구집단이다. 언어와 풍습이 유사하며,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동질적인 측면도 기존의 연구와 일정한 차이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도구변수의 특성 상 횡단면 분석(Cross-section)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새로운 도구변수를 통하여 횡단면분석과 패널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횡단면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기존의 문헌들에서 보고되는 것과 유사하게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반면 저학력 여성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패널분석을 할 경우에는 저학력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력하게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관찰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예측을 세우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하며, 5장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검토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I 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민여성의 유입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한 경제학 논문은 많지 않으며, 최근에서야 검토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기존의 문헌들은 많은 경우 저

1) 2016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인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합법화하여 저출산 및 여성 노동공급을 증대를 위한 해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20221/44200407/1> 참고.

임금 가사노동자의 유입이 고숙련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부분 저임금 가사노동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기존의 연구로는 Cortes and Tessada (2011)과 Barone and Mocetti (2011)을 들 수 있다. Cortes and Tessada (2011)는 미국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이민자 비중의 차이를 이용한다.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고임금 여성에게만 이민자들로 인한 노동공급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예측한 후, 1980년, 1990년, 2000년의 IPUMS-Census 데이터와 PSID에서 제공하는 ATUS 가사노동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실제로 고임금·고숙련 여성들에게서만 노동공급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다. Cortes and Tessada (2011)의 분석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도구변수를 통하여 내생성을 통제 한 후에는 최상위 임금분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지만, 임금분위 하위 25% 이하에서도 노동공급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분석대로면 이민자의 유입은 여성의 노동시간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셈이다. 다만 일을 할 확률 자체는 모든 분위의 여성에서 소폭 감소하였는데, 한계적인 노동자들이 경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Barone and Mocetti (2011)는 이탈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arone and Mocetti (2011)는 이민자들이 특정한 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사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국적의 이민자들의 증가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공급 결정 그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그 영향은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특기할만한 연구는 Cortes and Pan (2013)이다. 이 연구는 홍콩과 타이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삼중차분법을 이용한다. 그 결과, 홍콩의 입주 가사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공급을 10-14% 정도 증대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가사 노동자의 증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증대가 다양한 가구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역시 지역별 이민노동력의 비중을 이용한 Furtado and Hock (2010)은 저숙련 이민 노동자의 공급이 고숙련 여성으로 하여금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며 또한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Farre et al. (2011) 역시 저숙련 이민이 고숙련 여성이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출산 후 일로 돌아오는 시간 역시 단축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생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민자들의 거주지 선택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 다양한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Card (2001)에서 제시된 것을 따라 기존의 이민자 공동체의 크기를 도구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ortes and Tessada 2011, Barone and Mocetti 2011 등) 이러한 도구변수 활용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이나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기회에도 영향을 받지만, 해당 지역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민 공동체(ethnic community)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한 세대 전 등 일정한 기간 이전의 이민자들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도구변수 활용법은 그 특성상 횡단면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성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이민여성의 유입과 가사노동 전반에 대한 연구들도 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 사실 이 주제는 사회과학적으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이주한 가사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필리핀 출신 가사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2009)는 필리핀 여성 이주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세계화되는 구조 속에서 행하는 역할을 밝히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이민이 가사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Cortes (2008)는 지역별 격차를 이용하여 저숙련 이민의 공급이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Cortes (2008)를 바탕으로 본다면, 앞서 살펴본 이민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가사노동이 더욱 저렴해지면서 이를 더욱 고용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민자의 유입이 가사노동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보다 넓은 견지에서 공공경제학 및 노동경제학 문헌들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 가사노동에 공적인 보조가 주어질 경우,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 관찰된다는 다수의 문헌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Gustafsson and Stafford 1992 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적으로 저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은 고숙련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보조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며, 유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민의 유입과 국내 여성의 노동을 연결하여 본 문헌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이다. 특히 국내 여성들이 조선족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험을 내국인의 관점에서 본 경우가 많으며,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저숙련 여성 이민자의 유입은 가사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 서비스를 고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리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즉, 여성 이민자를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이 그에 상응하여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그에 따라서 이 연구는 각 지역 노동시장별로 저숙련 여성 이민자, 특히 가사노동에 관련한 저숙련 여성 이민자들이 확대될 때마다 여성의 노동공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방법론

1. 회귀방정식

이 연구에서는 Barone and Mocetti (2011)와 Cortes and Tessada (2011) 등 기존 문헌들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한국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존 문헌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LS_{it} = \alpha + \beta Immig_{jt} + X'_{ijt} + e_{ijt} \quad (1)$$

LS_{it} 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변수이며, 이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노동시장의 참여여부(extensive margin of labor supply)와 노동시간(intensive margin of labor supply)이다. 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는 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Immig_{jt}$ 는 이 방정식에서 관심을 갖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서,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 j 별로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가사노동과 관련된 여성 이민자의 비율에 로그를 씌운 값이다. 즉, t 년에 노동시장 j 에 대하여서는

$$Immig_{jt} = \log\left(\frac{\text{가사노동유관여성이민자수}_{jt}}{\text{전체인구}_{jt}}\right)$$

로 정의된다. X 는 통제변수들로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연령, 연령의 제곱, 여성의 임금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학력, 결혼여부, 고등학생 이하의 부양자녀 존재 유무, 6세 이하의 어린자녀 유무, 지역별, 연도별 더미변수 등이 활용되었다.

여기서 가사노동과 관련한 여성 이민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여성 이민자들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무관한 인력도 많다. 가령 고학력 여성 이민자가 한국의 가사노동에서 종사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관련한 여성 이민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Cortes and Tessada (2011)는 IPUMS-Census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을 이용하여, 저학력 이민자들을 가려내었다. 한편 Barone and Mocetti (2011)는 이민자들이 출신국가별로 특정한 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상위 10개의 이민자 집단을 가려낸 후 이들을 가사노동에 관련한 이민자로 정의하였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고려할 때, Cortes and Tessada (2011)의 방법은 사용하기가 어렵기에 이 연구는 Barone and Mocetti (2011)를 따라 가사노동과 관련이 있는 이민자를 국적을 통하여 가려내었다.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외국인 고용조사(Foreign Employment Survey) 마이크로 데이터이다. 외국인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아쉽게도 직접적인 가사노동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6가지 산업분류와 6가지 직업분류를 이용한 36가지 구분으로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군을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분류는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을 포함하는 셀인 <서비스업·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외국인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1> 국적별 서비스업·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

국적	숫자	비율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94	76.42%
중국인	9	7.32%
베트남	5	4.07%
기타	15	12.19%
총합	123	100%

자료: 외국인 고용조사 2014년 데이터

비록 외국인 고용조사의 부족한 표본수의 한계 상 숫자가 적긴 하지만,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해외의 사례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령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것은 이들이 영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도 연관성이 깊다. 이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한국에서는 조선족이 가사노동 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이다.

이는 여러 가지 질적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가령 2012년 국회 김용구 의원실과 한국 워킹맘연구소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조선족 입주가사도우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기도 하였다. (김용구 의원실 2012) 이는 조선족 가사도우미가 정책적 관심의 대상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경험을 논하는 다양한 기사와 문헌들이 존재하지만, 중국인이나 필리핀 등 다른 가사노동자의 국내 경험이나 상황, 혹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문헌은 드물다. 이처럼 정책적 및 질적 경험이나 기존 문헌들로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적은 표본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 중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조선족이 압도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노동시장별로 조선족 이민자의 비율을 가사노동에 유관한 이민자 규모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선족 거주자의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2006년부터이기 때문에, 자연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표본은 이분산성을 고려한 합동 OLS(heteroskedacity-robust pooled OLS)와 이분산성을 고려한 Panel GL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노동시장의 정의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예를들어 서울의 강남구 혹은 중구와 같은 하나의 구가 독자적인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의 경우,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이민자들은 보다 외곽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라서 정의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넓게, 혹은 출퇴근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그보다 더 좁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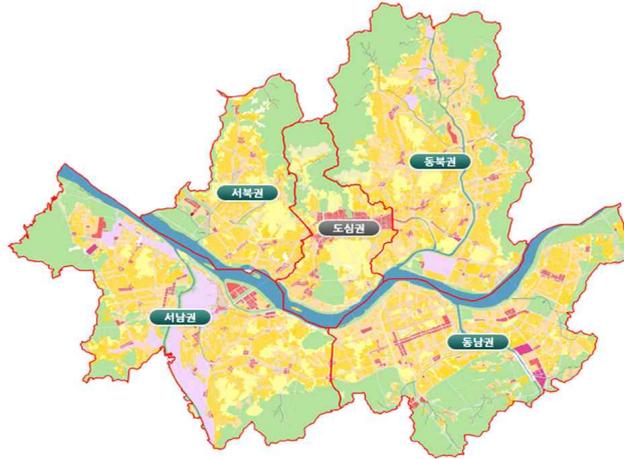
우선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그리고 도시라 할지라도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령 농촌지역의 여성들이라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도시의 여성들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12곳 출신의 표본만을 이용하였다. 한편 세종시는 해당 기간 내에 일관성 있게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제외하였다. 즉, 서울, 6대 광역시, 12개 특례시를 합쳐 19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 중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생활권 구분을 이용하였다.²⁾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내의 자치행정을 위하여 서울시를 5개의 권역별 생활권 및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려는 기획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은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눌

²⁾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 홈페이지 (plann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8월 17일 검색.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생활권 계획의 생활권의 지역 구분



그러나 각각의 권역, 예를 들어 도심권이나 서북권에 사는 여성이 고용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이민여성의 거주지역은 저 지역의 인접지역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서울시 관악구는 위 지도에서 서남권에 속하며, 서초구는 동남권에 속한다. 그렇지만 관악구에 사는 이민 여성이 서초구로 출퇴근하러 가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서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북권의 최북단에 있는 노원구나 강북구에서 서남권의 최남단으로 출퇴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당 생활권에 사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노동시장은 각 권역 및 그 인접 기초자치단체까지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서 서북권의 경우, 서북권에 속하는 세 구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더하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까지를 지역노동시장으로 보며, 해당 지역 전체의 여성 인구 중 해당 지역 전체의 여성 이민자 비중을 핵심 변수로 사용하였다.

서울 외의 지역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는 전국행복생활권의 생활권 구분을 사용하였다. 전국행복생활권은 전국을 5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며, 복수의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2014) 또한 생활권을 크게 20개의 중추도시권, 13개의 도농연계권, 21개의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도시들 중 전국행복생활권에 포함된 도시들은 모두 중추도시권의 중핵이 되는 도시들이다. 이 생활권계획은 통근 및 통학률, 소요시간, 산업연계성, 역사적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나누며, 각각의 생활권 사이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다. 가령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부산중추도시권과 울산중추도시권 양쪽 모두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2> 전국행복생활권 계획의 중추도시권



3)

하지만 이 전국행복생활권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서울 및 경기도 중서부지역은 생활권 정의의 범위에서 빠져 있다. 서울은 물론,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국행복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및 비수도권 지역 특례시(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천안시)뿐이다. 둘째, 이 생활권이 노동시장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노동시장의 범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포항 중추도시권의 경우 경상북도 울릉군과 영덕군을 포함하고 있다. 울릉군이 연혁이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항과 같은 생활권에 묶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나, 울릉군에서 포항까지 출퇴근을 하는 가사노동자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국행복생활권을 기초로 이용하되, 해당 중추도시와 직접적으로 경계를 맞닿고 있지 않은 시군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즉, 울릉군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국행복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의 노동시장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7개 특례시의 경우,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인접 시군구까지를 노동시장의 범위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정의된 노동시장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2> 지역 노동시장의 정의

노동시장	소속 행정구역		인접 지역	
서울 도심권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3) 이미지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egion.go.kr/news/record_read.php?board_id=32&id=45394)
2016년 9월 15일 검색)

	서울 용산구	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북권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서울 서남권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광명시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
서울 동북권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의정부시
서울 동남권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성동구 서울 용산구 서울 동작구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경남 양산시
부산	부산광역시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 영천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천군
대전	대전광역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계룡시 충남 논산시
인천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울산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경남 밀양시 경북 경주시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창원	창원시 ⁴⁾		경남 김해시 경남 함안군
수원	수원시		경기 의왕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성남	성남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고양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김포시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부천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시흥시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용인	용인시	경기 성남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이천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성시	
청주	청주시	충북 청원군 ⁵⁾	
안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수원시
		경기 군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의왕시	
전주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완주시
		전북 김제시	
천안	천안시	충남 아산시	
포항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영덕군

3. 도구변수 및 타당성

해당 회귀방정식을 사용할 때 내생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의 회귀방정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은 상향편의(upward bias)일 수도 있으며 하향편의(downward bias)일 수도 있다. 만약 조선족 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사노동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지역을 골라 이주한다면, 추정결과는 상향편의를 보일 것이며, 반대로 저숙련 국내 여성들이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피하여 이주한다면 하향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Cortes and Tessada 2011) 이민자들은 보통 임의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곳을 골라 거주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편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생성에는 크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에서는 보통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널리 사용되는 도구변수는 해당 지역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자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Card (2001) 이후로 이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이 도구 변수는 이주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기존의 이민자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의 크기 역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폴 콜리어 2014:56) 다만 한 세대 혹은 일정 기간 이전의 이민자의 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가령 Cortes and Tessada (2011)은 1970년 당시의 지역별 국적별 이민자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그 이후의 지역별 이민자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 세대 혹은 일정 기간 이전의 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시기의 경제적 여건과 현재의 여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으나, 단기간의 차이로는 이주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도구변수로서의 타당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구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형태의 도구변수로는 횡단면분석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변수는 이전 년도의 해당 지역 남성 조선족 이민자의 비율이다. 구체적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4) 통합 이전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5) 통합 이후는 별도의 인접지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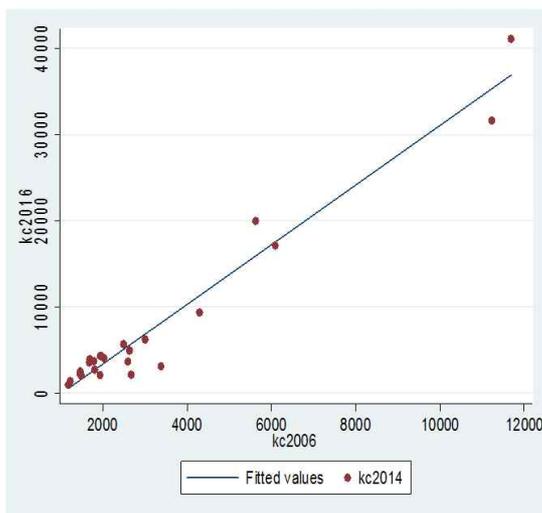
$$Immig_{it} = a + b ImMale_{j,t-1} + Dummy_{jt} + v \quad (2)$$

여기서 도구변수인 $ImMale_{j,t-1}$ 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j 에 $t-1$ 기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 남성 노동자의 비율에 로그를 씌운 값이다. 고정효과로는 광역자치단체별, 연도별 더미변수가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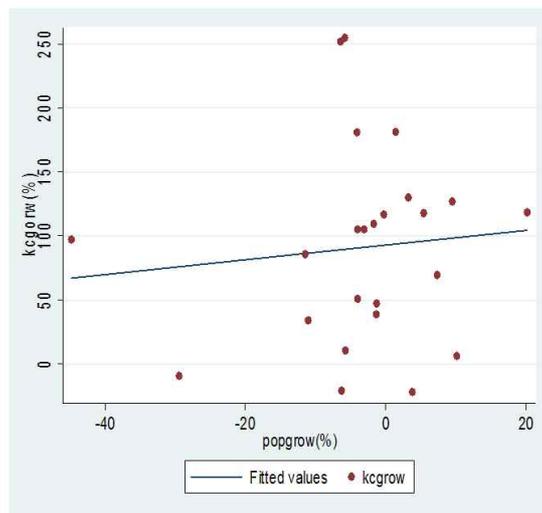
이처럼 남성 조선족 이민자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조선족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숙련으로, 건설노동이나 공업 등의 직업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별로 종사하지 않는 분야이다. 따라서 도구변수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인 여성의 노동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고 기대할 수 있다. 즉, $Cov(ImMale_{j,t-1}, LS_{it}) = 0$ 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선족 노동자들의 이주 패턴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보다는 기존 이민자 공동체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근거들도 존재한다. 아래 <그림 3>와 <그림 4>은 서울의 2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6년의 조선족 인가와 2016년의 조선족 인구 사이의 관계, 그리고 2006-2014년 전체 인구 성장률과 조선족 인구 성장률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조선족 이민자 집단의 크기는 이후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행사한 반면, 전체 인구성장률을 통하여 표현되는 서울 자치구별 경제상황 및 여건은 큰 관계가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도 전체 인구성장률과 조선족 인구성장률 사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만이 확인되었다.

<그림 3> 서울 자치구별 2006년과 2014년 조선족 인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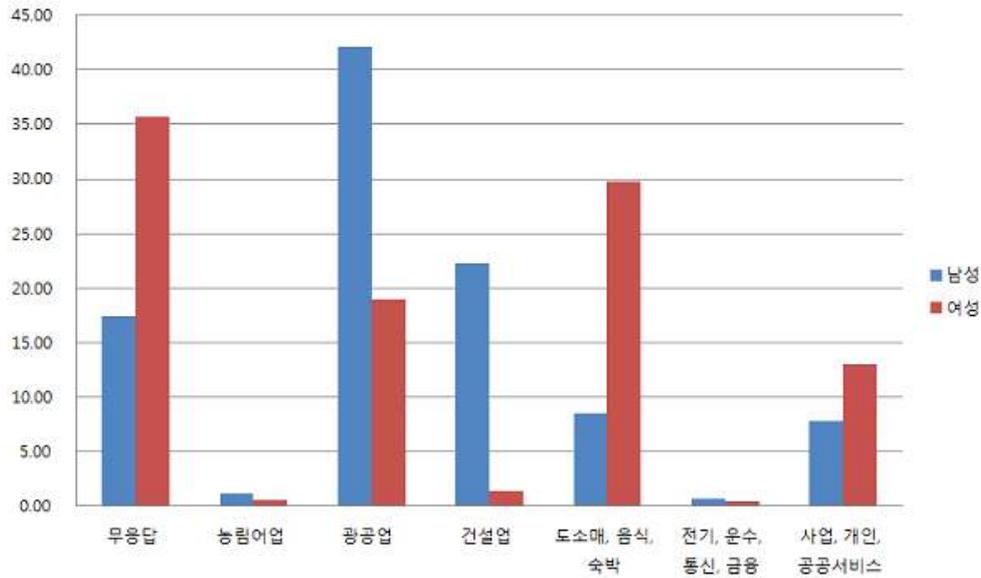
<그림 4> 서울 자치구별 2006-2014년 전체 인구 성장률과 조선족 인구 성장률의 관계



또한 남성 조선족 노동자들과 여성 조선족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아래 <그림 5>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성별로 구분한 것이다.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남성의 경우는 광공업과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반

면, 여성은 도소매, 음식, 숙박이나 개인서비스 등 업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로 분포하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 조선족 노동자의 거주 요인과 여성 조선족 노동자의 거주 요인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성별 조선족 노동자 종사산업



자료: 외국인 고용조사 2014년 자료

이는 실제 조선족 노동자들의 거주 패턴을 통하여서도 관찰된다. 아래 <표 3>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9년 동안 조선족 이민자들의 거주 패턴을 비교하여, 그 중 6년 이상의 기간에서 남성 혹은 여성 중 한쪽의 비율이 더 높았던 노동시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3> 조선족 중 특정성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노동시장

	남성비율>여성비율	여성비율>남성비율
9년	수원 창원 안산	서울 동북권 서울 동남권
8년	울산	서울 도심권 서울 서북권
7년	부산 인천 부천 용인 고양 천안 청주 포항	-
6년	대구	전주

분석에서 사용된 23개 노동시장 중 18개 노동시장이 9년 중 6년 이상 특정한 성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또한 공업시설이 밀집해있는 영남권의 5개 노동시장(부산, 대구, 울산, 창원, 포항)은 모두 6년 이상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곳은 5곳 중 4곳이 서울권이였다. 이처럼 특정한 성별이 특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더 많이 거주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변수는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자료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외국인 고용조사(Foreign Employment Survey) 마이크로 데이터

외국인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통계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귀화한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외국인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2012~2015년의 4개 년도 자료가 가용하지만, 표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변수와 연결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외국인 고용조사 데이터는 3장에서 어떠한 노동자들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조선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상 특성이 어떠한가 등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것은 2014년의 자료이다.

2. 통계청 인구통계

두 번째로, 지역 노동시장별로 조선족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광역자치단체별, 국적별, 성별별 전체 인구수 통계 및 한국국적이 아닌 자 통계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국적이 아닌 자의 통계는 2006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2년부터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도부터의 4개 년도만을 이용하기보다는 연령별 구분 없이 지역별로 집계된 전체 조선족 인구수 및 전체 거주자 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3장에서 정의한 방식을 통하여 전국 23개 노동시장의 10개 년(2006~2015년) 230개 노동시장에 대한 조선족 비율의 요약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4> 노동시장별 조선족 비율 요약통계량

	남성 조선족 비율 (지역별)	여성 조선족 수 (지역별)
평균	0.93%	0.89%
중간값	0.72%	0.70%
최대값	3.87%	3.39%
	(경기 안산, 2015년)	(경기 안산, 2014년)
최소값	0.06%	0.11%
	(전북 전주, 2008년)	(대전, 2006년)
표준편차	0.0075	0.0079
Q1	0.26%	0.21%
Q3	1.47%	1.38%
첨도	1.0738	0.9645
N	230	230

3. 한국노동패널(KLIPS) 10차~18차 자료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2007~2015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10차부터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지역별 이민자 데이터의 시계열이 2006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전년도의 남성 이민자 비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은 2007년부터의 표본이 된다. 한국노동패널의 자료 중에서 여성의 표본만을 이용하였으며, 서울과 6대 광역시 및 12개 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해당 시계열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구축이 어려운 관계로 세종시의 표본은 제외하였다. 이 중에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만을 추려내기 위하여 20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의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31552개의 관측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여성 표본들에 대한 요약 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5> 여성 표본 요약통계량

종류	평균	표준편차
노동시장 참여율	0.5196	0.4996
주간 노동시간 (IH>0)	44.1744	14.3403
연령	42.7144	12.1778
혼인비율	0.7168	0.4506
대졸 이상		22.00%
대재 및 전문대졸		15.44%
고졸		34.28%
고졸 미만		22.20%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		17.46%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		49.09%
전체 표본		31552

자료: 한국노동패널 10~18차 데이터, 서울, 광역시 및 특례시 거주 20~65세 여성 표본만을 취함

V. 분석결과

1.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지역별로 조선족 이민자의 비중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Panel A>를 살펴보면,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후의 계수는 횡단면분석과 패널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인구집단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가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Panel B>와 <Panel C>에서 각기 대졸 이상과 대졸 미만으로 표본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대졸자 표본에서는 노동시간이 증대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Panel C>의 결과이다. 횡단면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때, 대졸 미만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 분석, 가령 Cortes and Tessada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Cortes and Tessada (2011)의 논문에서 하위 소득분위자, 즉 저숙련 노동시간의 경우,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 후에 살펴보자, 뚜렷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표 6>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전체 표본	$Immig_{jt}$	-0.0041 (0.7135)		-0.0251*** (0.0000)	
	N	15756		15756	
	\widehat{Immig}_{jt}		-0.0051 (0.2242)		0.0000 (0.9609)
	N		15738		15738
Panel B 대출자	$Immig_{jt}$	0.0685*** (0.0025)		0.0207*** (0.0000)	
	N	3866		3866	
	\widehat{Immig}_{jt}		0.0166 (0.1731)		0.0055*** (0.0000)
	N		3860		3860
Panel C 대출 미만	$Immig_{jt}$	-0.0322** (0.0121)		-0.0614*** (0.0000)	
	N	11890		11890	
	\widehat{Immig}_{jt}		-0.0071 (0.1427)		-0.0037*** (0.0013)
	N		11878		11878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Panel C>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조선족 노동자가 가치는 특수성이다. 조선족 노동자는 언어나 풍습 등의 측면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반면에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들은 언어나 관습 등에서 보다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Cortes and Tessada (2011)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횡단면분석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패널 분석을 통하여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들이 이민자들의 지역적 분포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log(\text{WorkHour}) = \alpha + \beta \widehat{Immig}_{jt} + X' \gamma + \mu_i + e_{ijt} \quad (3)$$

위의 식 (3)이 노동시간에 대한 실제 모형이라고 하자. 횡단면 분석의 경우에는 μ_i 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패널분석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μ_i 들이 통제되어, 그 영향이 사라진다. 만약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즉 $Cov(\mu_i, Immig_{jt}) > 0$ 이라면, 식 합동 OLS에서는 $\hat{\beta} > \beta$ 인 반면, 패널 분석에서는 $\hat{\beta} = \beta$ 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관찰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이 이민자들의 선택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기존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계수값들은 일정부분 그 정도를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07년에 분석대상인 23개 노동시장에서 조선족 여성 비율의 평균은 0.57%였으며, 2015년에는 1.33%였다. 해당 기간 동안의 이민자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대졸 이상의 여성에서는 약 2.6%의 노동시간 증대, 그리고 대졸 미만의 여성에서는 약 3.7%의 노동시간 감소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보인다.

<표 7>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졸 이상)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기혼자	$Immig_{jt}$	0.0876*** (0.0053)		0.0096* (0.0637)	
	N	2223		2223	
	\widehat{Immig}_{jt}		0.0215** (0.0479)		0.0123*** (0.0000)
	N		2218		2218
Panel B 유자녀 기혼자	$Immig_{jt}$	0.0979*** (0.0056)		0.0378*** (0.0000)	
	N	1761		1761	
	\widehat{Immig}_{jt}		0.0230* (0.0617)		0.0133*** (0.0000)
	N		1756		1756
Panel C 무자녀 기혼자	$Immig_{jt}$	0.0091 (0.0899)		-0.0216** (0.0154)	
	N	462		462	
	\widehat{Immig}_{jt}		0.0088 (0.6309)		0.0070* (0.0510)
	N		462		462
Panel D 미혼자	$Immig_{jt}$	0.0621* (0.0581)		0.0102** (0.0155)	
	N	1643		1643	
	\widehat{Immig}_{jt}		-0.0041 (0.7551)		-0.0031 (0.1479)
	N		1642		1642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다음으로, 고학력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민자 유입과 노동공급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정말로 가사 노동을 통한 것에서 나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 표본을 좀 더 구분하여 살펴보자. 만약에 조선족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여 노동공급이 증대된다면, 그 효과는 자연 기혼자나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서 강할 것이며,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약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의 <표 7>은 대졸자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이다.

예측과 마찬가지로, 기혼 대졸 여성과 유자녀 기혼 여성들에게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는 반면, 미혼 여성에게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횡단면분석과 패널분석 양쪽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계수값의 경우는 기혼자보다는 유자녀 기혼자가 더 컸고, 패널분석보다는 횡단면 분석에서의 계수값이 더 컸다. 위와 같은 결과는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가설에 부합하는 것임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Cov(\mu_i, Immig_{jt}) > 0$ 이 성립할 가능성 또한 함께 시사한다.

이어서, 대졸 미만의 저학력 여성들에게서도 어떠한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이어서 <표 8>에서 제시되고 있다.

<표 8>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졸 미만)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기혼자	$Immig_{jt}$	-0.0496*** (0.0011)		-0.0833*** (0.0000)	
	N	8239		8239	
	\widehat{Immig}_{jt}		-0.0080 (0.1459)		-0.0050*** (0.0014)
	N		8229		8229
Panel B 유자녀 기혼자	$Immig_{jt}$	-0.0129 (0.5529)		-0.0670*** (0.0000)	
	N	4250		4250	
	\widehat{Immig}_{jt}		-0.0064 (0.4321)		-0.0057*** (0.0005)
	N		4242		4242
Panel C 무자녀 기혼자	$Immig_{jt}$	-0.0908*** (0.0000)		-0.1289*** (0.0000)	
	N	3989		3989	
	\widehat{Immig}_{jt}		-0.0109 (0.1496)		-0.0066*** (0.0082)
	N		3987		3987
Panel D 미혼자	$Immig_{jt}$	-0.0008 (0.9723)		-0.0171*** (0.0000)	
	N	3651		3651	
	\widehat{Immig}_{jt}		-0.0054 (0.5656)		-0.0025 (0.2156)
	N		3649		3649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우선, 횡단면분석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혼자 집단에서는 모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횡단면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부

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패널분석을 하는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미혼 여성들이었다. 대졸 미만의 미혼 여성들이 다른 집단과 달리 조선족 이민자와의 경쟁에서 큰 영향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이 집단이 다른 대졸 미만 여성 집단에 비하여 평균 나이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이 관측되는 대졸 미만의 여성에서, 평균 나이는 44.3세, 중간값은 46세였던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39.0세, 중간값은 36세였다. 같은 대졸 미만의 여성들 집단 내에서도, 일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는 보다 어리며,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 조선족 여성과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내국인 여성과 조선족 이민자들의 경쟁과 보완

위의 분석결과는 표본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전체 표본을 이용하면서도 조선족 이민의 유입이 어떠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새로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조선족 여성 이민자들이 가사노동을 도움으로써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면, 이러한 효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큰 유자녀 기혼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관찰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렇기에 해당집단을 영향을 받는 그룹으로 정의하고, 위 집단과의 교차항을 통하여 새로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패널로 된 Generalized Least Squares를 이용하였다.

$$\log(\text{WorkHour})_{ijt} = \beta_1 \widehat{\text{Immig}}_{jt} + \beta_2 \widehat{\text{Immig}}_{jt} * D + X' \gamma + e_{ijt} \quad (4)$$

여기서 D 는 유자녀 기혼여성에 대한 더미변수이다. 이 식에서 β_1 은 해당 집단의 노동시간에 조선족 이민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β_2 는 유자녀 기혼여성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이민자 유입의 효과인데, 이 연구는 이를 조선족 이민자들을 가사노동시장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통하여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식 (5)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전체 표본에서는 β_1 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반면에, β_2 는 전체 표본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인구집단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열 (2)와 열 (3)의 β_1 값들이다. 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는 β_1 이 거의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고학력 여성들과 저숙련 조선족 이민자들이 동일 노동시장에서 거의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인다. 반면에 열 (3)에서는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저학력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9>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교차항 이용)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1) 전체 표본	(2) 대출 이상	(3) 대출 미만
β_1	0.0010 (0.2990)	0.0005 (0.7532)	-0.0075*** (0.0000)
β_2	0.0010** (0.0267)	0.0022*** (0.0022)	0.0043*** (0.0000)
N	15738	3860	11878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한편, β_2 의 값은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저학력 여성들에게서도 유의한 값을 보였다. 조선족 여성들이 가사노동시장에서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비하여 보다 열등채로 인식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저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는 조선족 여성들과 경쟁하면서도 가사노동에서는 조선족 여성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저학력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이민의 영향은 음의 값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3.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

이어서, 조선족 이민자들의 유입이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기본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노동시장 참여여부(일 함 = 1), Linear Probability Model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전체 표본	$Immig_{jt}$	-0.0460*** (0.0000)		-0.0306*** (0.0000)	
	N	31090		31090	
	\widehat{Immig}_{jt}		-0.0002 (0.9500)		-0.0056* (0.0752)
Panel B 대출 이상	N		31051		31051
	$Immig_{jt}$	-0.0108 (0.5805)		0.0190 (0.1943)	
	N	6808		6808	
Panel C 대출 미만	\widehat{Immig}_{jt}		-0.0076 (0.3839)		-0.0042 (0.5612)
	N		6799		6799
	$Immig_{jt}$	-0.0670*** (0.0000)		0.0034 (0.6365)	
Panel C 대출 미만	N	24282		24282	
	\widehat{Immig}_{jt}		-0.0065 (0.1384)		-0.0032 (0.3258)
	N		24252		24252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내생성을 통제한 후의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수준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패널분석을 통하여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기는 하나,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조선족 여성의 유입은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일을 하던 여성이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반대로 일을 하지 않던 여성이 가사노동을 구매함으로써 일을 시작하게 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고학력 여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11>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에 맞춰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노동시간 참여 결정 그 자체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

<표 11>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대졸 이상)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기혼자	$Immig_{jt}$	-0.0069 (0.7775)		0.0396** (0.0496)	
	N	4525		4525	
	\widehat{Immig}_{jt}		-0.0059 (0.5774)		-0.0042 (0.6468)
	N		4517		4517
Panel B 유자녀 기혼자	$Immig_{jt}$	0.0002 (0.9953)		0.0365 (0.1072)	
	N	3560		3560	
	\widehat{Immig}_{jt}		-0.0104 (0.3840)		-0.0099 (0.3486)
	N		3552		3552
Panel C 무자녀 기혼자	$Immig_{jt}$	-0.0522 (0.3344)		-0.0547* (0.0537)	
	N	965		965	
	\widehat{Immig}_{jt}		0.0044 (0.8511)		-0.0118 (0.3780)
	N		965		965
Panel D 미혼자	$Immig_{jt}$	-0.0056 (0.8622)		0.0026 (0.8717)	
	N	2283		2283	
	\widehat{Immig}_{jt}		-0.0086 (0.5384)		-0.0019 (0.8460)
	N		2282		2282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하지만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저학력 여성들에게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관찰된다. 분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조선족 여성의 증가와 패널분석에서의 계수들을 이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이민자 증가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약 1.5% 포인트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효과는 특히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에게서 강력하였다. 해당 집단은 아직 신혼으로 자녀가 없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주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년층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조선족 여성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경쟁관계를 겪고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집단의 노동시간 감소폭은 약 2% 포인트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에게서는 유일하게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12> 조선족 이민자의 유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대졸 미만)

		종속변수: log 노동시간 (노동시간>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Pooled OLS	Pooled OLS	Panel GLS	Panel GLS
Panel A 기혼자	$Immig_{jt}$	-0.0665*** (0.0000)		-0.0250*** (0.0049)	
	N	17823		17823	
	\widehat{Immig}_{jt}		-0.0090* (0.0829)		-0.0191*** (0.0000)
	N		17796		17796
Panel B 유자녀 기혼자	$Immig_{jt}$	-0.0425** (0.0145)		-0.0617*** (0.0000)	
	N	9561		9561	
	\widehat{Immig}_{jt}		-0.0010 (0.8919)		-0.0179*** (0.0006)
	N		9545		9545
Panel C 무자녀 기혼자	$Immig_{jt}$	-0.0854*** (0.0000)		0.0439*** (0.0036)	
	N	8262		8262	
	\widehat{Immig}_{jt}		-0.0170** (0.0216)		-0.0278*** (0.0000)
	N		8251		8251
Panel D 미혼자	$Immig_{jt}$	-0.0790*** (0.0000)		-0.0126 (0.1345)	
	N	6459		6459	
	\widehat{Immig}_{jt}		-0.0001 (0.9934)		0.0033 (0.3517)
	N		6456		6456

괄호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기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이민자의 유입이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학력 여성들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경쟁관계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서는 가사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보다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고 보이나, 이러한 노동공급 증대는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일을 할지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반면 저학력 여성들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혼여성들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민자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5%포인트, 인구집단에 따라서는 2% 포인트를 넘는 노동시장 참여 감소폭이 관찰되었다.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감안한다면, 경쟁에 직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며, 이민자들의 유입에도 저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기혼자 집단에게서만 관찰되었으며, 미혼 여성들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계수 값이 확인되었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지역에서 조선족 이민의 증대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상반된 영향을 끼쳤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선족 이민 증대로 인하여 노동시간을 약 2.6% 증대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큰 기혼여성, 특히 그 중에서도 유자녀 기혼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다. 반면에 저학력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효과는 노동시장에서 조선족 여성과의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 여성들에게서 집중되어 나타났다.

해당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항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역시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였으나, 유자녀 기혼 여성에 대한 더미 변수에서는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편, 대졸 미만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유자녀 기혼 여성에 대한 더미 변수에서는 저학력 여성에게서도 노동시간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면은 저학력 여성이 전반적으로 조선족 여성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기혼 여성들은 가사노동시장에서 조선족 이민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족 이민자들이 가사노동을 대체하여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노동시간 결정에 국한된 것이고, 노동시장 참여 결정 그 자체에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저학력 여성들의 경우는 조선족과의 경쟁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큰 효과가 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보다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고 가사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고학력·고숙련 여성들이 노동공급을 확대할 수 있음은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저학력·저숙련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층에서는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저학력 여성들이 외국인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 역시도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확대에 인하여 이득을 보는 층이 보다 고학력층이고, 손해를 보는 층이 보다 저학력층이라면, 저학력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의 마련이 절실할 것이다.

VII. 참고문헌

- Barone, Guglielmo and Sauro Mocetti (2011), "With a Little Help from Abroad: The Effect of Low Skilled Immigration Labour Supply", *Labour Economics*, Vol. 18, pp.664-675.
- Borjas, George J. (1999), *Heaven's Door: Immigration Policy and the American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rjas, George J. (2014), *Immigration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Borjas, George J. (2016), "The Wage Impact of the Marielitos: Additiona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21850.

Card, David (1990),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3, pp.245-257.

Card, David (2001), "Immigrant Inflows, Native Outflows, and the Local Labour Market Impacts of Higher Immigratio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19, No. 1, pp.22 - 64.

Cortes, Patricia (2008), "The Effect of Low-Skilled Immigration on U.S. Prices: Evidence from CPI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6, No. 3, pp.381-422.

Cortes, Patricia and Jessica Pan (2013), "Outsourcing Household Production: Foreign Domestic Workers and Native Labor Supply in Hong Ko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1, No. 2, pp.327-371.

Cortes, Patricia and Jose Tessada (2011), "Low-Skilled Immigration and the Labor Supply of Highly Skilled Wome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3, No. 3, pp.88-123.

Farre, Lidia, Libertad Gonzalez and Francesc Ortega (2011), "Immigration, Family Responsibilities and the Labor Supply of Skilled Native Women",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11, Issue 1, Article 34.

Furtado, Delia and Heinrich Hock (2010), "Low Skilled Immigration and Work-Fertility Tradeoffs Among High Skilled US Nativ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One Hundred Twenty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100, No. 2, pp.224-228.

Gustafsson, Siv and Frank Stafford (1992), "Child 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7, No. 1, Special Issue on Child Care, pp.204-230.

Osili, Una O, and Jia Xie (2009), "Do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Free Ride More than Na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 and Proceedings*, Vol. 99, No. 2, pp.28-34.

김용구 의원실·한국 워킹맘연구소(2012),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입주 가사 도우미[조선족 이모] 정책제안 간담회」, 대한민국 국회, 간담회 자료집, 2012.03.12 (2016년 6월 15일 국회도서관을 통하여 검색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PAMP1000040124&sysid=nhn>)

김정호(2009),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9-15』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이연

지역발전위원회(2014),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4.03.12

최경수(2013),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61권 3호, pp.153-194.

폴 콜리어(2014), 『엑소더스: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 김선영 역, 21세기북스

서울시 생활권 계획 홈페이지 planning.seoul.go.kr (2016년 6월 17일 검색)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egion.go.kr/news/record_read.php?board_id=32&id=45394
(2016년 9월 15일 검색)